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집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5월 31일 (제79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얼굴

얼굴은 '얼(정신)'을 담은 굴레(틀)'라는 뜻이다. '어린이'는 얼이 아직 어린 사람이고, '어른'은 얼이 익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한 우리가 욕처럼 쓰는 '얼간이'는 얼이 잠시 나간 사람이고, '얼빠진 사람'은 얼이 아예 빠진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얼이 썩은 사람을 말한다.

얼이란 영혼이며, 정신이다. 그래서 그 얼을 담은 그릇인 얼굴은 영혼에 무엇을 담았느냐, 어떤 정신 상태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얼굴이 인격의 현주소, 삶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 유다의 모델이 같은 이였다고 한다. 두 얼굴을 보면 같은 모델로 그렸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추가 엇갈린다. 아름답고 인자한 얼굴을 가진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자가 몇 년이 흐른 뒤 범죄에 가담하여 사형수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유다의 모델로 발탁된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있던 아름답고 인자함 대신 흉악함이 배어 있었고, 또한 사형수로서의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로 변해 있었다. 왜 그의 얼굴이 그렇게 변했을까? 그의 정신이 변했기 때문이고, 얼이 썩었기 때문이다.

지금 거울을 꺼내 당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라. 어떤 얼이 담겨져 있는지 보일 것이다. 꽃에서는 향기가 풍기지만, 풍에서는 악취가 나듯 당신의 얼에 따라 얼굴이 자리 잡을 것이다. 이목구비가 확실해야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얼이 바르고 맑고, 인격과 신앙이 갖추어질 때 진정 미인(美人)이 되는 것이다.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있지만, 생긴 대로 노는 게 아니라 노는 대로 생김이 달라지는 법, 믿음 안에서 품격과 품위를 예절이라는 그릇에 담는다면 당신의 얼굴은 아름다워지리라.

나의 얼굴을 변화시킨 주님을 찬양하며!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선 안 된다

개는 그냥 두어도 개가 되고, 소는 그냥 두어도 소가 된다. 짐승들은 그냥 두어도 자라서 제 본능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짐승처럼 산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면 반드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 동물의 세계에는 양육강식이라는 단순법칙에 따라 질서가 유지되지만, 인간사회는 그렇지 않다. 반드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있고, 그 법이 준수되어야 사회가 혼란 없이 제 기능을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방종이 극에 달하여 그 옛날 소돔과 고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가야 하는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노아의 시대, 왜 인간세계가 멸망했는지, 소돔과 고모라는 왜 불의 심판을 받고 무너졌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

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1:24-27).

그런데 이런 불순한 바람이 우리나라에



"우리 모두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자!"

모라의 타락처럼, 타락한 로마의 모습처럼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다. 두 눈을 가진 원숭이가 외눈박이 원숭이 마을에 갔다가 비정상이란 놀림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한 눈을 찢어버렸다는 일화가 있다.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이인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없으면, 이런 비극을 초래한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성경은 인간 삶의 분명한 원칙을 가르치고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17).

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10:6-11).

청교도 신앙에 기초하여 세워진 나라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있다. 분명 성경은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

까지 상륙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상이 정상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형국이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보호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한 이 나라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혼돈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날이면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 쌓아올린 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든 탑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 100년을 키운 나무를 자르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당신의 한 통화가 세계를 복음화 한다!

ARS 060-700-0688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9:2~8)



반찬이 좋아야 입맛이 난다

성경의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이 잠언을 읽다보면 절로 지혜의 샘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의 샘이 터진다고 해도 그것을 생활에 접목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잠19:6). 이 말씀 역시 지혜의 샘 속에서 퍼낸 말입니다. 선물이 뭐니까? 선물(贈物)이란 반찬 선(膳)과 만물 물(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膳)자의 구조를 보면 달 월(月)과 착할 선(善)으로 이루어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전하는 착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면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습니 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외가로 출행랑쳤었기 때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거부가 된 야곱은 늘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문제였습니다. 이제나저제나 하고 칼을 갈면서 기다리는 형이 딱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야말로 옛 유행가처럼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냅니다. 에서에 먼저 예물을 보내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양, 낙타와 황소를 택하여 앞서 보냅니다.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합의였더라(창32:20)”라고 생각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욱 복되다

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형이 선물을 받은 후에 분을 풀고 오히려 야곱에게 와서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창33:12)”고 하며, 호위를 자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물은 원수까지도 감동시키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길보아에서 시글락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 아말렉 군대에게 약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잡혀가고 없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뒤쫓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군사 중 200명은 너무 지쳐 있는 관계로 제하고 400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아말렉 진영에 뛰어들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가족들을 되찾아옵니다. 당연히 많은 전리품도 취했지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행동을 잘 봐야 합니

다.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윗은 전투에 참석하지 않고 후방에 남아 있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전투에 참석한 자들이 불평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도 제공합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전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전리품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요? 그들이 다윗의 친구가 됨은 물론이요,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선뜻 내놓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예로 들어봅시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프리카의 숙원사업은 부족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인데, 중국은 아프리카 농지개간에 투자하고 품종을 개량하며, 아프리카 젊은이들을 자국에 불러들여 농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을 짓고, 향만시절에 투자하는 등 일사천리로 아프리카 인프라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많은 서방국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중국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의 속내가 훤히 보이지만, 분명 이것은 지혜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누구에게 개방하겠습니까? 조금 먹

지도 해외 선교를 떠날 때면 항상 다양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거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것들입니다. 대개 이태원에서 파는 우리나라 전통문양이 그려진 지갑이나 벡타이 같은 것들인데요, 집회를 주관하는 현지 목회자나 집회를 적극 돕는 권력 및 재력가들에게

저는 벡타이를 선물하고는 직접 목에 매어 줍니다. 그리고 꼭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변치 말고 주를 위해 같이 목을 맵시다.”라고요. 이러면 그들은 굉장히 감격해합니다. 또 지갑을 선물하면서 “당신 평생에 재물이 마르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들은 지갑 이상을 선물로 받은 기쁨을 표현하며 더욱 충성을 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살짝 열릴 것입니다. 그 때 진심을 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화해될 것입니다. 아내가 요새 시

큰둥합니까? 오늘 퇴근길에 예쁜 티셔츠라도 선물해 보

세요. “여보, 이거 별거 아니지만, 내 맘이야.” 하

고 전하면 아내의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또 남편의 주머니에 용돈을 몰래 넣고는 ‘기죽지 말고 살아요.’라고 쪽지라도 써넣으면 처진 남편의 어깨가 펴지지 않을까요? 직장이나 거래처에도 작은 선물로 마음 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말은 선물을 무슨 때에만 하지 말고, 일이 생겨야 하지 말고 평소에 하세요. 그래야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러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잠18:16)는 말씀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사베안 왕국의 스바 여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스바 여왕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먼 길이라고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은 향품과 금, 보석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향품이 전에는 없던 것이라고

말해 가장 좋은 것임을 입증 했습니다.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은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며 혀를 둘러댔고요. 이것이 전례가 되었을까요? 국가 간의 정상이 만날 때면 선물 교환이 먼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의요,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택에 보내는 예단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감동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지혜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다

없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또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면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사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심으로 교회에 덕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전12:31).

이제 주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과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감격과 감동으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선물로 안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안 열릴 때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문에 기름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도 기름을 치는 것이 낫습니다. 선물을 주면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선물과 뇌물은 다른 것입니다. 뇌물은 반드시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나 선물은 주는 것으로 행복하고,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기쁜 것입니다.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선물에 실는다면 그것은 인생을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업사이드 작전

축구 경기에 '업사이드 작전'이란 것이 있다. 상대방이 너무 서둘러 공격할 때 수비진들이 일제히 전진수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수로 하여금 반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축구팀들은 절묘하리만치 이 업사이드 작전을 잘 사용해 노도처럼 밀려드는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낸다. 이 작전은 고도의 두뇌 플레이어서 냉정해야 한다. 이 작전은 정신없이 공격하는 상대방을 어이없이 멸속하게 하여 바보로 만들기 일쑤다.

업사이드 작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상대방이 한참 자신의 가문, 학벌, 똑똑함을 자랑할 때나도 행여나 질세라 나를 내세워 맞받아 자랑한다. 상대방이 어떤 이름 있는 명사(名士)를 들어 그 사람과 동등됨을 애써 강조하면 이쪽에서는 그 사람이 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더 잘난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 명사를 깎아 내린다. 얼마나 추한 대화인가!

상대방이 자기를 한참 자랑할 때, 나는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를 취한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제 자랑할 때 일수록 성도들만은 더욱 낮아지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들은 겸손한 자를 한참이나 지나서 마치 무인지경을 달려가듯 자기 의를 내세워 떠들어 대다가 문득 나의 침묵과 겸손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 할 것인가! 이것이 통쾌한 업사이드 작전의 성공인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작전의 창시자이시다.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제자들의 반칙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자기 의를 들어내며 의인으로 자처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앞에서 한없는 겸손을 보이심으로 그들의 반칙패를 선언하신 것이다.

사도바울도 이 작전에는 명수였다. 아테네서 전도하던 중 철학논쟁에 걸려 한참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다가 무참하게 패배한 경험을 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했다. 십자가의 도가 당시의 지성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지만, 바울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을 의지가 약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무언가 의지하는 피난처로 생각하며, 세상의 낙오자들이나 믿는 종교로 보는 사람들은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 생명의 주를 찾지 않는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전1:18).’

낮아지리라. 겸손해지리라. 상대방이 기고만장하여 자기의 의를 내세울 때 일수록 더욱 그리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23:12).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동가숙 서가식

과년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차고 해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혼처가 두 군데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처자의 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청년은 재산은 많으나 인물이 없고, 또 한 청년은 늙름하고 잘 생겼지만 가세가 다른 청년보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아버지는 딸을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애야, 동쪽에 사는 총각은 돈은 많은데 인물이 영 아니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힘은 항우장사인데 가세가 약간 기우는구나. 두 총각 중 어느 쪽이 낫겠니?”

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잠은 동쪽 집에 가서 자고, 밥은 서쪽 집에 가서 먹고...”

이 이야기는 동가숙 서가식(東家宿西家食)이란 말의 유래가 된 중국민담입니다.

요즘 동가숙 서가식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한 집에 같이 살지만, 내면적으로 동가숙 서가식 하는 가정들이 많은 것입니다. 집은 그저 잠을 자고 나가는 곳 이상의 개념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비싼 소파는 있지만, 거기에서 뒹굴며 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졌고, 넓은 식탁은 있지만 다 같이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인테리얼일 뿐입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사회가 살아납니다. 사회가 살아나야 국가도 바로 섭니다. 붕괴되어 가고 있는 가정을 살리는 길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시 가족끼리 얼굴을 보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꾸어봅시다.

예수중심편집실



::To Be Succeed::

반전드라마 같은 삶

승진과 결혼, 다이어트, 공부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한 성공전략연구소 전문가는 절실함과 더불어 '우선순위'가 변화와 성공의 핵심요인이라고 말한바 있다. 절실함은 행동을 불려오고, 올바른 우선순위가 곧 성공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함으로써 머릿속에 있는 무수한 생각과 일들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렉 맥커운(Greg Mckeown) 또한 저서 '에센셜리즘'(Essentialism)에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분석, 점검하여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다시금 목표를 세워 나아갈 때, 비로소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올바른 우선순위는 조화롭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대부호의 상징, 록펠러의 삶이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기,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기, 십일조 철저히 드리기,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기 등 그의 어머니가 남기신 열 가지 신

앙유산은 곧 아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는 록펠러를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했을 뿐 아니라, 죽을병에 걸렸던 55세를 기점으로 후반 43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제하며 자신과 남들 모두를 운택하게 하는 삶을 살게 했다.

반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참사로 불리는 모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에 총 피해액 270여억 원에 이르는 이 대참사는 건물과 고객의 안전보다 회사의 재산, 돈을 우선시한 회장 및 경영진의 비상식적이고도 어처구니없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조사를 받던 중 취재 기자에게 사대질을 하며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회사 재산에 손해가 간다는 뜻이야!”라고 한 당시 회장의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처럼 올바른 우선순위와 가치관은 나와 주변을 살리지만, 뒤죽박죽된 우선순위와 잘못된 가치관은 실패를 넘어 자멸(自滅) 및 공멸(共滅)을 부른다.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 염려와 근심, 세상적인 정욕과 안목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하나님은 활활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굼주려 포효하는 사자들 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신앙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하셨을 뿐 아니라 높은 자리로 올리시어 온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어디 그뿐인가? 세상의 가문과 지식, 명예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하나로 발견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감히 어느 누가 실패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생명과 윤리, 기도와 말씀, 예배와 같이 삶과 신앙에 있어 다른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행할 때, 내 삶과 영혼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무엇을 우선시 하느냐’는 곧 내 영·혼·육의 건강을 진단하는 척도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며칠 전, 서울 교육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천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에 안내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과 부대시설들을 돌아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지요. 교회 곳곳에 담임목사님의 아이디어와 정성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날 저를 가장 많이 놀라게 한 것은 입당예배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목사님, 전도사님과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들어오는 길목에서 안내를 서는데 ‘예수중심교회’라고 붙인 버스에, 승합차에, 교회 마크 붙은 승용차들이 줄줄이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기도원 산상집회를 보는 듯했습니다. 아나나 다들까, 안내를 마치고 올라가 보니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주변 갓길과 골목에까지 ‘축하 사절단’의 차량들로 빈틈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입당예배를 드리고 있는 2층 성전은 입추의 여지없이 의자부터 바닥까지 성도들로 가득했고, 그마저도 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1층 교육관과 복도에도 교역자 분들과 성도님들이 자리하고 영상 이원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는, 말 그대로 진풍경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오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다시 각자의 처소로 향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12:15).

각자 섬기는 지역이 다르고 하는 일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예수중심 가족임을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참된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휴가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지요. 봄에는 개나리,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매화. 만약 모든 꽃들이 봄에만 폼다면 겨울은 얼마나 삭막했을까요? 반대로 모든 꽃들이 겨울에만 폼다면 봄은 얼마나 불품없었을까요? 꽃을 피우는 시기가 서로 달라서 세상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최고를 보여주고, 누군가는 3,40대에 전성기를, 누군가는 5,60대에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도 하지요. 최고의 시기가 모두 달라서 모든 인생은 저마다 기대해볼만 합니다. 먼저 앞섰다고 자만할 필요도, 조금 뒤쳐져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이유지요. 하지만 이럴 때는 정말 일어서기 힘들다는 걸 알아야.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말이에요. 분명 분발하고 있는데 제자리걸음이고 뭘 해도 잘 안 될 때, 실망할까봐 기대하는 것조차 겁이

날 때 말이죠. 한창 취업준비를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좌절의 늪에 허우적대던 제게 어떤 드라마가 이런 말을 건네더군요. “그럴 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긴 휴가라고. 왜 있잖아요, 뭘 해도 도무지 잘 안될 때. 그건 신이 주신 휴가라고 생각해요. 초조해하지 말아요. 언젠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취업에 실패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하루아침에 잇몸이 툭툭 붓고 이가 너무 상해서 수건을 물고 있어야만 겨우 잠에 들 수 있을 정도였지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그 때, 저 대사가 제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 지금은 하나님이 네게 주신 휴가야라고. 그 시간을 통과하고 보니,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때가 지친 제 영혼을 쉬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한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던 고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었고, 겉으로만이 아닌 진

심을 다해 힘든 친구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할 때 세상의 눈에는 최악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과 함께 한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처럼요.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를 포용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요. 연일 뉴스에서 취업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휴가니까요. 노력했다면, 이 휴가가 끝난 후 가장 좋은 때에 당신만의 꽃이 필 거니까요.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최선이란?

사소한 결정은 ‘머리로 하고’, 큰 결정은 ‘가슴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따뜻한 가슴’으로 가는 길이 두어 뼘도 되지 않는 가까운 길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죽도록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낚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고 사자는 꼭 참고 먹었습니다. 사자 역시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낚마다 소에게 대접했고 소 역시 너무나 괴로웠지만 참고 먹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참을성은 결국 한계에 다다르고 결국 소와 사자는 크게 다툰 후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기를 “난 그래도 최선을 다 했어.”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최선이었습니까?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런 최선은 오히려 최악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주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까운 가족이기에, 너무나 편안한 부모님이기에 혹시 소홀히 대하진 않았는지... 참된 행복은 내안의 나를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닐까요?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에도 건강을 위한 음식들과 운동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예전에 비해 확연하게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나 수영장도 만원이고 주말이면 근교 산을 찾는 사람들의 인파로 산을 오르는데 정체가 생길 정도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오래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인생의 목적도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므두셀라’라는 사람은 969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연수만 채우고 갑니다. 삶의 목표를 수시로 바꾸어가며 살다가 결국은 부지불식간에 죽어가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삶입니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가 지은 또 다른 책, ‘아들과 연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공 여자는 지적이고 교양미를 갖춘 상류층의 여인이었지만, 지적인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건강하고 맛있는 광부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 다. 날마다 부부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두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결혼

을 앞두고 폐렴으로 죽고, 둘째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으나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고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며 우리 인간들의 행복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 하리로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46:3~5).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기(氣와) 혈(血을) 보충해주는 보약

십전대보탕은 몸을 전반적으로 보양하는 대표적인 한의학상의 처방으로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십보탕(十補湯), 십전산(十全散)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십전대보(十全大補)라는 처방명은 모든 것(十)을 온전하고(全) 지극하게(大) 보(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 송(宋)나라 태종 때 진사문(陳師文) 등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지은 의서(醫書)인 <태평惠民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허준(許浚), 유완소(劉完素) 등의 저명한 의학자들이 저술한 의서에서 기혈(氣血)을 대보(大補)시켜 허로(虛勞)를 치료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즉 십전대보탕은 몸을 전반적으로 보양(補養)하는 대표 처방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각종 허약성 질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동의보감 잡병편의 허로문에서는 ‘허약하고 피로해서 기와 혈이 모두 약해진 것을

치료하고 능히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한다(治虛勞, 氣血兩虛, 能調和陰陽).’, ‘허약하고 피로해서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治虛勞自汗).’고 기재되어 있다. 현대에서는 임상적으로 만성허증질환, 병을 앓고 난 후 회복 또는 수술 후 회복할 때 사용빈도가 높다. 실제 임상에서 십전대보탕은 만성 체력저하, 수술 후 회복시, 과로로 인한 체력저하, 수험생의 체력관리, 암환자들의 면역강화, 환절기 보약, 성장발육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면역계의 증강에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 처방은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 숙지황, 백작약, 천궁, 당귀, 황기, 육계 각 4g씩으로 한 첩이 구성되고 여기에 대추 2개, 생강 3쪽을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처방의 구성을 보면 사군자탕(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과 사물탕(숙지황, 백작약, 천궁,

당귀)을 합친 후 황기와 육계가 추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군자탕은 기(氣)를 보하여 기운이 나게 하는 효과를 보이며, 사물탕은 혈(血)을 보하여 체내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는 처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인과 같이 소화력이 부족하거나, 쉽게 피로감을 가지는 체질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십전대보탕을 복용한다면, 피로회복과 면역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앞서 언급했듯이 체력이 좋거나, 체내 열이 많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쉽게 흥분을 하는 체질의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균형이 깨지게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체내의 과도한 열이나 기운의 막힘을 풀어주는 한약 처방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러한 음식들이 필요해 보인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